

탐라 - 제주 石築 文化의 始原과 傳承*

전영준**

〈차 례〉

1. 머리말
2. 탐라 석축 문화의 형성과 전개
3. 고려시대 제주 환해장성의 初築과 전승
4.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의 대표적 석축문화로 볼 수 있는 성곽과 관방에 대한 석축 사례는 이미 탐라전기에 축조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석축유적부터 축적되어 온 돌문화의 전승에서 비롯하였다. 7세기 후반 탐라의 주거 형태는 지상식 주거지로 주거지 경계에 돌담을 두르고 풀로 지붕을 엮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형태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이전부터 이용되었을 것이다. 즉, 금성리 유적은 원형의 돌담집 자리로 여겨지며, 제주도에는 탐라국 시기에 이미 돌을 이용한 석축 문화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판관 김구의 발담 수축은 탐라전기(삼국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유적의 수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인 탐라 전기부터 활용되어 온 석축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거지 보호나 마을 보호 등의 경계 석축의 원용을 통해서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환해장성이 제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 후기까지 활용되었던 중요한 관방시설이었다. 특히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해 고려 관군에 의해 축조된 환해장성이 조선시대에서는 연대와 봉수 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환해장성의 축조가 제주 축성문화의 시원처럼 묘사되고 있어서 탐라국 시기의 축성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제주의 돌 문화 또는 석축 문화는 외부의 문화전파로 형성되었다는 시각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환해장성의 축조는 기존의 고려시대 축성과는 차이가 있고, 축성에 동원된 제주민들도 고유의 석축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환해장성을 연구하고 있는 현상

* 이 논문은 2022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이 보인다. 환해장성의 축조는 고려군과 삼별초군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환해장성의 성석이나 면석, 채움석 모두 제주도산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장소에서 석재를 가져와 성을 축조한 것이 아닌 환해장성이 설치된 주변 해안의 석재를 이용한 것이다. 제주도의 다공질 현무암은 한반도 내의 석재와 그 성질이 달라 성곽을 축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려군과 삼별초군이 환해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는 탐라전기부터 현무암을 활용하는 석축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민들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주제어] 금성리 석축유적, 석축문화, 판관 김구, 발담, 환해장성, 삼별초

1. 머리말

제주도는 탐라국 시기부터 무한자원으로 널린 바위와 돌을 활용하여 집담, 발담, 산담, 성담, 원담, 거옥대 등의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돌 문화를 형성하였다. 탐라국 형성 이후 풍부한 자원인 돌을 활용한 생활상은 돌집과 돌담 등의 기초적인 주거 양식을 생성하였고, 한국사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역사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탐라국은 기원 전후 출현하여 4세기경 고대 정치체로 성장하였다. 탐라 전기는 재지계의 외도동식, 광지리식 토기와 외래계의 마한계 토기가 공반되며, 수혈주거지 내부 타원형 수혈의 주혈이 초석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지고 변형된 형태의 주거지가 제주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거점 취락화되는 기원후 300~500년까지로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¹⁾ 이와 더불어 탐라 후기는 재지계의 종달리식 토기를 거쳐 고내리식 토기와 외래계의 통일신라 토기가 공반되고 주거지는 지상화되어가는 단계로 기원후 600~9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²⁾ 이러한 시기의 설정은 탐라국 후기의 하한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각이어서 고려에 예측된 1105년까지를 탐라국 후기로 보는 연구와³⁾ 10~11세

1)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2) 김경주,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 『人類學考古學論叢』,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2012.

3) 강창화, 「고대 탐라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로 보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기를 탐라 말기로 설정하는 시도⁴⁾도 있다. 또한 문헌사적으로는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탐라’의 명칭이 유지되고 있어 고려시대의 제주가 ‘탐라’로 불리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 아울러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된 시기는 1105년(고려 숙종 10)의 일이나 여전히 ‘탐라’라는 지명을 사용하였고, 1223년(고려 고종 10) 이후에야 ‘제주’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제주 연구는 고려의 존속기간에 탐라국이 중첩된다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⁶⁾ 이런 이유로 탐라국 후기의 문화상을 도의시한 채 고려에 복속된 시점 전체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해 고려 관군에 의해 축조된 환해장성⁷⁾이 조선시대에서는 연대와 봉수 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환해장성의 축조가 제주 축성문화의 시원처럼 묘사되고 있어서 탐라국 시기의 축성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제주의 돌 문화 또는 석축 문화는 외부의 문화전파로 형성되었다는 시각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제주의 돌 문화가 환해장성으로 대표되면서부터 탐라국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을 석축 또는 축성문화의 원형을 망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환해장성의 축조는 기존의 고려시대 축성과는 차이가 있고, 축성에 동원된 제주민들도 고유의 석축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환해장성을 연구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고학 연구성과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탐라 고유의 석축 문화와 생활문화 및 환해장성 축성 주체 및 축성 시기 등을 검토하여 탐라국 시기의 石築文化가 후대에 끼친 역사문화적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4)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호남고고학회, 2021.
 5) 김용덕, 「고려시대 탐라의 사찰 유적」, 『탐라의 고려 불교 수용과 전개 양상』 - 2023 탐라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사)탐라성보문화원·한국중세사학회·한국중세고고학회, 2023, 129쪽.
 6) 전영준, 「제주 廢寺址로 본 탐라의 불교 수용」, 『탐라의 고려 불교 수용과 전개 양상』 - 2023 탐라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사)탐라성보문화원·한국중세사학회·한국중세고고학회, 2023, 149~150쪽.
 7) 김유정,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2012, 346쪽.

2. 탐라 석축 문화의 형성과 전개

1) 금성리 석축 유구의 발굴과 의미

제주의 대표적 석축문화로 볼 수 있는 성곽과 관방에 대한 석축 사례는 이미 탐라전기에 축조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석축유구부터 축적되어 온 돌문화의 전승에서 비롯하였다.⁸⁾

금성리에서는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석축과 원형석렬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발굴조사 당시 공사 구간 내에 대한 발굴조사로 석축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다만 축조시기와 그 성격을 일부 파악했을 뿐이다. 이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서 탐라시대 유적으로 기존 발굴조사된 곳과 연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유구 유적의 범위와 그 성격을 규명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성격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⁹⁾

2017년 금성리 638-1번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원형석렬유구¹⁰⁾와 석

축유구는 탐라전기(A.D. 300~500, 삼국시대)로 보고 있는데, 원형석렬유구의 경우 원형의 지상 집자리로 보고 있다. 탐라시대 주거지에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唐會要』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① 탐라는 신라 무주 해상위에 있으며 … 집 주위에 등갈게 담장을 두르고 풀로 덮었다. … 龍朔¹¹⁾ 元年



[사진] 금성리 638-1번지 원형주거지

8) 금성리 마을은 원래 광지리에 포함되어 있다가 1894년에 분리되었는데, 과거 제주 14현촌 중 郭支縣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규모 촌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금성리유적』, 2001, 66쪽.

10)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금성리 638-1번지 유적』, 2019.

(661) 팔월 조공(을 바치기 위한 사(신)이 이르렀다.¹²⁾

이 기록으로 볼 때 7세기 후반 탐라의 주거 형태는 지상식 주거지로 주거지 경계에 돌담을 두르고 풀로 지붕을 엮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형태가 갑자



[사진2] 금성리 석축유구 전경

기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이전부터 이용되었을 것이다. 즉, 원형석렬 유구는 원형의 돌담집 자리로 여겨지며, 제주도에는 탐라국 시기에 이미 돌을 이용한 석축 문화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성리 석축 유구는 1996년과 1998년에서 일부분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 유구이다. 1996년 석축 유구가 발견된 곳의 지형은 서편 끝이 금성천과 맞닿아 있어 동에서 서로, 즉 하천으로 가면서 경사져 내려간다. 이 석축 유구의 외벽은 약간 다듬어진 현무암제 활석(직경 30cm 이상)을 사용하여 7단 이상 겹겹이 쌓은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외벽의 높이는 180~210cm 정도이다. 석축 유구의 폭은 4.2~4.5m 정도이다. 외벽은 동서로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노출된 길이는 62.2m이다. 이 석축시설의 내벽은 외벽보다 정교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자갈한 돌을 채워 넣거나 흑갈색점토, 덜 소성된 토기편 등을 단단하게 다져 축조하였다. 또한 석축시설 안쪽으로 50cm 정도 간격을 두고 석축렬과 동일한 방향으로 폭 20~30cm의 천석렬이 석축과 관련하여 이어지고 있었다. 이 적석 시설의 상면 상태는 고르지 못한 점으로 보아, 현재보다 더 올라간 석축부분이 평삭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11) 龍朔은 당나라 제3대 황제인 고종이 사용하였던 연호로 사용기간은 661~663년까지 사용되었다.

12) 『唐會要』耽羅國條, “耽羅 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有弓刀楯鎗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661)八月 朝貢使至.”

13)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글, 2001, 39쪽.



[사진3] 유구 출토 貨泉

1998년 조사된 석축 유구의 규모는 길이 18m, 폭 80~100cm가량 되며, 유구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완만한 일직선에 가깝다. 비교적 석재가 큰 것으로 3단 이상 정형성 있게 쌓여 있고, 서편은 동편의 석재에 비해 비교적 작은 현무암 석재가 쌓여 있으며 2단 내외로 동편에 비해 조잡하게 축조하였다. 유구 중앙부 동벽에서 천석으로 된 평평한 석재 3매가 3단으로

계단처럼 일정하게 쌓여 함께 채워져 있다. 석재 상면은 마연된 것처럼 매끈하며, 하면에는 작은 할석으로 고인 것처럼 흙과 석축 상단에는 50~60cm가량 밑에는 목탄, 소토, 잔자갈, 적갈색 항아리형 토기가 혼재된 혼토층이 확인되었다. 유구 남쪽과 북편에서 貨泉(A.D. 14~25년 주조)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이 화폐는 유구의 축조시기를 특정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여, 당시 대외무역의 기착지 혹은 중개지의 포구와 관련된 집자리 유구일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해 주는 자료로 확인되었다.¹⁴⁾

1996년과 1998년 조사에서 확인된 석축 유구의 규모는 2017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축 유구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길이 10m, 폭 1.2m로 대형이나, 높이는 40~60cm 내외로 1996년 조사된 석축의 높이 1.8~2.1m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축조 방법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편이다.¹⁵⁾



[사진4] 금성리 석축유구 단면

1996년과 1998년 조사에서는 석축의 북편 하단과 그 주변으로 현무암 암반이 발달되어 있고 일부 둥글게 마모된 자갈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현대 해안의 모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금성

14)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위의 글, 2001, 157쪽.

15) 제주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9, 121쪽.

천 하구와 해안이 근접되어 있어 석축이 축조될 당시 이곳의 지형이 해안과 바로 연결된 지형이어서 이 석축유구는 당시의 바다와 관련된 호안석축일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¹⁶⁾ 하지만 2017년 조사를 통해 경계 석축과 제방시설이라는 두 성격 중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축 유구는 금성리 638-1번지 유적과 금성리 석축 유구에서 확인되는 주거지가 모두 석축 유구 남쪽과 동쪽 즉, 석축 유구를 경계로 해안선에서 안쪽으로 위치하는 점과 해안가는 모래로 뒤 덮여 있어 취락 유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계석축보다는 제방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금성리 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원형석렬 주거지와 석축 유구는 고려 이전인 탐라전기부터 고유한 석축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알게 한다. 또한 석축 유구의 형식을 보더라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환해장성과 유사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재검토하겠다.

2) 기록으로 보는 제주의 돌담 문화와 판관 김구

제주의 축성과 축담은 탐라 전기의 금성리 유적을 거쳐 고려와 조선에서도 확인된다. 즉, 『高麗史』의 「金坵傳」에 전하는 기록으로부터 대몽항쟁기의 환해장성을 거쳐 조선 초기의 각종 건물지로 계승 발전되어 갔다.

세계의 농업문화유산인 ‘黑龍萬里’로 표현되는 제주 발달의 수축은 고려 때의 일로, 당시 제주 판관으로 부임하였던 金坵(1211~1278)¹⁷⁾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김구는 과거에 합격한 2년 뒤인 24세 때 定遠府司錄으로 임명되었으나,¹⁸⁾ 同鄉人 황각보의 고발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때 최우가 그를

16) 제주고고학연구소, 위의 글, 2019, 18쪽.

17) 金坵(1211~1278)의 본관은 扶安이고, 자는 次山이며, 호는 止浦이다.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하였고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定遠府司錄, 濟州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예종 때 柳璣이 천거하여 예부시랑이 되어 원나라에 관한 문서를 담당했으며,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원나라에서 귀국하여 <北征錄>을 저술하였다. 그 뒤로 右諫議大夫, 中書侍郎平章事, 知僉議府事 등을 거쳤다. 궁내의 연소자들에게 漢語를 배우도록 권장하였고, 원종 때 유경과 함께 신종, 희종, 강종 3대의 실록을 수찬하였고, 충렬왕 때 高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시호는 文貞이며, 문집에 <止浦集>이 있다(『蘆沙集』 권18 「序」, <扶寧金氏族譜序>).

18) 『高麗史』 卷106, 列傳19, 諸臣, 金坵. “... 補定遠府司錄 同縣人黃閣寶挾憾 摘世累 訴有司 權臣崔怡

구제하느라고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그를 제주 관관으로 고쳐 임명하였다.¹⁹⁾ 김구의 가문상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는 없으나, 가문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최우의 도움으로 제주 관관의 소임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²⁰⁾

1234년(고종 21)에 제주로 부임한 김구는 1239년(고종 26)까지 약 6년간 제주를 관할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며, 그중에서도 밭담을 쌓아 경계를 분명히 하여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의 기록은 제주의 석축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김구의 연보에도 같은 내용이 전하고 있으며,²¹⁾ 『탐라지』 풍속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²²⁾

- ②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다. 《東文鑑》에, “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고 오직 보리·콩·조만이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의 독이 없어서 강하고 포악한 집에서 날마다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金坵가 관관이 되었을 때에 백성의 고충을 몰아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²³⁾

이때의 强暴之類가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168

重其才 營救不得 改濟州判官. 時崔滋爲副使 ….”

19) 『止浦集』 권3 부록, 「高麗平章事文貞金公神道碑銘」, “…改濟州通判 時崔文清滋 爲濟副使 見公詞賦 謂其子曰 此可作詩賦準繩 濟之田 舊無疆畔 强暴之類有因緣兼拜者 且多鹿馬害穀之患 民病之 公遂築石爲垣 正其經界 防其蹂躪 民至今賴之 攷滿.”

20) 하태규, 「고려후기 金坵의 정치활동과 학문」, 『역사와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193~194쪽.

21) 『止浦集』 권3 부록, 年譜 “端平元年 高宗二十一歲 甲午 公二十四歲 出判濟州 初補定遠府司錄 同縣人黃閣寶挾憾 摘世累訴有司 宰臣崔怡 重其才 營救不得 改濟州判官 右出麗史列傳 ○公在濟州時 文清公崔滋爲副使 人有自京來報科場賦題云 秦孝公據崤函之固 囊括四海 滋謂公曰 此題難賦 試爲我著之 公談笑自如 亡何 索筆立書 文無加點 滋歎服 語其子曰 此詩賦之準繩 汝謹藏之 右出麗史列傳 ○濟州地多亂石乾燥 素無水田 惟麩麥豆粟生之 牛馬獐鹿驅踏 穀穗無實 厥田古無疆畔 强暴之家日以蠶食 百姓苦之 公莅官 卽問民之疾苦 聚石築垣爲界 民多便之 至今賴之 右出東文鑑耽羅誌”

22) 『耽羅志』, 風俗, 石築垣 “…金坵爲判官 問民疾苦 聚石築垣爲界 民多便之.”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風俗. “聚石築垣. 《東文鑑》: “地多亂石乾燥, 素無水田, 唯麩麥豆粟生之. 厥田古無疆畔, 强暴之家, 日以蠶食, 百姓苦之. 金坵爲判官, 問民疾苦, 聚石築垣爲界, 民多便之.”

년에 일어났던 ‘良守의 亂’과 관련 있는 세력이었을 것이다.²⁴⁾ 1168년 탐라에서 발생한 ‘양수의 난’은 과중한 賦稅 부담과 지방관과 토착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과 갈등에서 빚어진 일이다.²⁵⁾ 즉, 고려 건국 초기부터 행해졌던 1034년(정종 즉위년) 11월 八關會의 進獻으로 말미암은 고려와 주변국 간의 정치적 타협에서 시작된 탐라의 고려 조공에 더욱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1052년(문종 6)에는 糶의 歲貢額을 구체적으로 정할 정도로 고려는 탐라의 물산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鄭以吾가 제주 임지로 부임하는 朴德恭을 송별하는 序에서도 제주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③ 그 풍속이 이만스럽고 거리도 먼 데다가 星主, 王子, 土豪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사역(使役)으로 얻은 이익을 人祿이라 하여 백성을 확대하고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하였다.²⁶⁾

성주·왕자·토호들이 ‘평민의 사역(使役)으로 얻은 이익’을 人祿으로 여긴다는 말은 제주를 다스리거나 그것에 동조하는 지방 권력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중앙에서는 이미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권의 지배구조가 정착되는 단계였지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은 중앙 파견 지방관의 행정력이 배제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탐라에 군이 설치되고 고려 조정으로부터 직접 수령이 파견되었지만 성주와 왕자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적 족장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고려 정부는 탐라의 성주와 왕자에게 그들의 지위를 세습하는 독자적인 토착 세력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물을 제외한 조세도 탐라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도

24) 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난」, 『역사와 교육』 25,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111~140쪽.

25) 전영준, 위의 글, 2017, 113쪽; 『高麗史』 권18, 세가18, 의종 22년 11월. “丁丑, 耽羅安撫使趙冬曦, 入觀,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 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 官吏不法, 賊首良守等, 謀叛, 逐守宰, 王, 命冬曦, 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 及其黨五人, 餘皆賜穀帛, 以撫之.”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風俗. “俗獠地遠 鄭以吾 送朴德恭之任序 ‘其俗獠而地且遠, 加以星主 王子及夫土豪之强者 爭占平民爲役使 謂之人祿 殘民以逞 稱難治也.’”

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1153년(의종 7) 무렵부터 탐라에 현령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탐라민은 외관의 급여 일부도 감당하여야 했다.²⁷⁾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歲貢으로 콩 1斛을 바치게 하였으며, 아전들에게도 말 1필을 바치게 하여 이를 현령과 현위가 나누어 가지면서²⁸⁾ 이를 감당하여야 할 제주 민들은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에서 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진상품을 바치는 등 세금 부담이 외관 파견 이전보다 급증하였고, 탐관오리가 부임하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빙자하여 수탈이 가중되었다.²⁹⁾ 제주 사회의 사정에 개의치 않았던 지방관과 탐라민 사이에는 갈등이 빈번하였고, 결국 1168년(의종 22)의 양수가 난을 일으켜 제주민들로부터 선정관으로 추앙받았던 최척경을 다시 탐라현령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³⁰⁾할 정도로 세금 문제는 심각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상황에서 관관 김구의 파견과 활동은 제주의 토착세력이나 토호들의 횡포를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을 쌓아 발담을 만들고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토호들로부터 제주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김구 관관은 6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제주민 구제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볼 때, 발담의 수축은 김구의 공적으로 제주민의 칭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김구의 발담 수축은 탐라전기(삼국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유적의 수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인 탐라 전기부터 활용되어 온 석축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저지 보호나 마을 보호 등의 경계 석축의 원용을 통해서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7) 인종 때의 外職 邑祿에 따르면, 탐라현령의 녹봉은 연 26석 10두이고 현위는 20석이다.

28) 『高麗史』 권121 「列傳」34, 良吏 金之錫, “金之錫, 未詳其世係. 高宗末, 爲濟州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 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以故守宰雖貧者, 皆致富.”

29)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30) 『高麗史』 권99 「列傳」12 諸臣 崔陟卿, “允儀曰, 耽羅地遠俗獷, 爲守實難故, 以予補之. 幸予勿憚, 往撫遠民, 不爲國家憂, 則當報以美官. 陟卿不得已就任. 興利革弊, 民皆安之. 及還, 允儀已死, 陟卿貧甚, 無以自存, 將還鄉. 會全羅按察使馳奏, 耽羅人苦令尉侵暴以反. 乃曰, ‘若得陟卿爲令, 當釋兵. 王謂宰相崔褒僞曰, 有賢如此, 何不用之. 召賜綾絹, 卽除耽羅令. 陟卿請挈家以赴, 王許之, 任耽羅者, 與室偕, 自陟卿始. 耽羅人聞陟卿來, 卽具輕艦迎之. 比入境, 皆投戈羅拜曰, 公來, 吾屬再生矣. 按堵如故.’”

따라서 김구가 발담을 수축하는 배경에는 금성리 유적의 석축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고,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양한 제주의 석축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원에서 성곽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 자원인 돌을 활용하였다는 것은 김구 이후부터 제주 석축 문화가 정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토산】 과실이 果園에서 나오는데 과원은 모두 담을 쌓았다. 모두 열아홉 곳인데, 대정이 여섯 곳이고 정외가 다섯 곳이다.³¹⁾

⑤【성곽】 邑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 3백 94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성안에는 물이 없고 성 남쪽 큰 돌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물이 솟아 나오는데 이름이 嘉樂貴이다. 깊이가 10척 가량 된다. 흐름을 가로막아서 접성을 쌓았는데 성안 사람들이 길어다 마신다.³²⁾

⑥【관방】 涯月浦 방호소; 주 서쪽 42리에 있다. 明月浦 방호소; 주 서쪽 60리에 있다. 이상 방호소에는 모두 鎭戍하는 군졸을 두어서 지킨다. 정의와 대정도 같다.

『신증』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천 20척이요, 높이가 8척이다. 동쪽 서쪽 남쪽에 문이 있고 성안에 샘이 있어 냇물처럼 솟아 나온다. 예전에 성이 없었는데, 正德 景오년에 이 땅이 飛陽島로 倭船이 가까이 대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쌓았다.

『신증』 別防城; 주 동쪽 75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천 3백 90척이고 높이가 7척이다. 동쪽 북쪽에 문이 있다. 正德 庚午에 이 땅이 牛島로 왜선이 가까이 대일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성을 쌓고 金寧 防護所를 여기에 읍기고 別防이라 이름하였다.³³⁾

3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土産] “諸種果出果園, 園皆築墻. 凡十九處, 大靜六處, 旌義五處.”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邑城]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南大石下有穴, 水涌出, 名嘉樂貴, 深可丈許. 截流別築重城, 城中人取汲.”

- ⑦【제영】『돌담과 관잣집의 백성 사는 곳이 후미지다』의 설명으로 ‘前 사람의 시에, “물나라의 갈대는 雲夢의 저녁이요, 산성의 굴과 유자는 洞庭의 가을이로다. 돌담과 관잣집은 백성 사는 곳이 궁벽하고, 다른 옷과 다른 말소리는 손님된 사람의 근심이로다.”³⁴⁾

제주의 대표적인 석축문화로 볼 수 있는 성곽과 관방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서와 같이 이미 탐라전기에 축조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석축유구부터 축적되어온 돌문화의 전승은 정치체가 바뀌는 고려에서도 확인된다. 즉, 『고려사』의 「金垆傳」에 전하는 기록으로부터 대몽항쟁기의 환해장성을 거쳐 조선 초기까지도 그 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의 관덕정을 소개하는 기록에서도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새 정자를 그 위에 일으키고, 이름을 觀德이라 하였다.”³⁵⁾ 거나, “七星圖, 州 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터가 있다.”³⁶⁾고 하여 관청 등의 주요 건물은 이전 시기부터 향유하였던 석축문화를 활용하는 건축양식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며, 그 배경에는 탐라 후기인 고려 초기에 수용한 선진 불교문화의 전승과도 연계하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탐라의 고려 접촉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공질서 속에서 부정기적인 진헌무역이 이루어졌고, 팔관회 참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가 수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탐라국 후기인 고려 전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정사·법화사·원당사·오등동사지 등에서 10~11세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사실은 제주고고학의 연구 성과에도 잘 부합한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적시한 寺名들도 이전 왕조의 불교를 전승하였다는 의미이므로,

3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關防], “涯月浦防護所. 在州西四十二里. 明月浦防護所. 在州西六十里. 已上防護所, 皆置留鎮軍卒以守之. 旌義, 大靜同. [新增] 石築城. 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西南有門, 城中有泉. 涌出如川. 古無城, 正德庚午, 以此地爲飛陽島倭船泊近處, 築之.”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題詠」, “石牆板屋民居僻. 前人詩 “水國蒹葭雲夢暮, 山城橘柚洞庭秋. 云云, 異服殊音客子愁.”

3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樓亭], “觀德亭 築石爲臺, 以起新亭于其上, 名之曰觀德.”

3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古跡], “七星圖 在州城內, 石築, 有遺址.”

이를 숙고하면 탐라국 후기에 전래된 고려의 선진불교가 지방 정부 편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수많은 寺庵의 창건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결과적으로 탐라의 불교 수입은 선진적 건축기법의 전래도 동시에 이루어져 관련 수공업의 확장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건물 기단부 다짐층의 존재는 탐라시대부터 향유하였던 석축 문화가 기반을 이루고 이후의 건축양식을 반영한 문화상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다.

3. 고려시대 제주 환해장성의 初築과 전승

1) 환해장성의 초축과 성격

관관 김구의 돌담 축조 기록과 금성리 유적에서 발굴된 석축 유구를 함께 볼 때 제주도 석축문화의 원형은 환해장성 축조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생활문화인 발담과는 다른 형태로 보는 환해장성의 원형은 탐라시기에 축조되었던 석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이미 환해장성 초축 이전인 탐라시기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석축 또는 제방시설이 존재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 문화 원형의 요소가 환해장성 축조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환해장성의 초축과 역사문화적 성격을 분석한 후 시기별 환해장성의 변화와 함께 탐라시기의 석축 유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37) 전영준, 앞의 글, 학술대회자료집, 2023, 163쪽.

38) 김병희, 「고려시대 성곽 축성술」, 『한국 성곽의 구조와 축조기법』, 수원화성박물관, 2016, 65쪽
 <표1 한국 성곽의 시기별 주요 특징> 참조. 이에 따르면 고려시대는 ①기단식 관측도성(영정주 초석 사용) ②외적 침입으로 인한 험한 산세의 피난형 석축산성 증가(군사적 요충지 산성에서 유사시 백성들의 입보를 위한 피난 목적으로 전환) ③읍성 축성(왜구침입에 대비한 연해안 지역 위주) ④평지성과 평산성 증가 ⑤석축산성 막돌 허튼쌓기 기단부 지대석 사용, 중부 내륙지역 수직기둥흙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⑧ 안찰사 권단이 영암부사 김수를 보내 병사 200명으로 제주를 지키게 하였다.

또 장군 고여림으로 하여금 군사 70명을 거느리고 그를 따르게 하였다.³⁹⁾

⑨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에 응거하니, 왕이 시랑 고여림의 무리를 탐라에 보내어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방비하고, 그로 인하여 長城을 쌓았다.⁴⁰⁾

사료에서는 고려 정부가 관군을 동원하여 삼별초의 제주 상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해안을 따라 석축을 쌓았는데 최초의 축조 지역은 官浦인 조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화북까지, 동쪽으로는 함덕 인근까지를 대상지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던 주현과 지방관을 전혀 파견하지 않던 속현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었다. 주현은 다시 京·都護府·牧을 포괄하는 主牧과 知州府郡·防禦州·縣令·鎭將을 포괄하는 領郡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이 실제 지방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속현(屬郡과 屬縣을 통칭)은 지방관이 배치된 다른 지방 관청에 예속되어 있었다.

『耽羅志』 제주목 건치연혁 항목에 의하면,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東道와 西道로 나누어 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狐村·洪爐·猊來·山房·遮歸 등의 縣村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14개의 현을 열거하였다. 현촌이란 속현을 말한다. 이에 비해 『증보문헌비고』 郡置沿革 전라도 항목에는 『탐라지』의 호촌·산방·차귀의 3개 현촌 대신에 兎山·狐兒를 넣어 13개 현촌으로 기록하여 숫자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金正浩의 『大同地志』 旌義·大靜 두 현의 古跡 항목에는, “호이는 일명 호촌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이 호이를 포함하여 흥로·토산·예래·산방·차귀 등 6개의 현은 모두 이때 설치되었다. 따라서 『탐라지』와 『증보문

39) 『高麗史』 卷103, 列傳 16, 諸臣, 金應德. “按察使權坦 遣靈巖副使金須, 以兵二百, 守濟州, 又使將軍高汝霖, 率兵七十繼之.”

4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古跡]. “古長城.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현비고』의 숫자상 차이는 누락에 의한 착오이다. 그러므로 충렬왕 26년에 설치된 현촌은 모두 15개였다. 『탐라지』의 14개 현촌에 『증보문헌비고』의 토산현을 합친 숫자이다. 거기에는 주현인 탐라현의 治所로 大村縣이 있었으므로 속현은 모두 16개였으며, 여기에 주현인 탐라현(뒤에 濟州牧)까지 합쳐서 명목상으로는 17개의 행정단위가 정비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편제되었던 16개 현촌은 주현인 탐라현(뒤에 제주목)의 관할 하에 있었던 속현 소속이다. 이들은 크게 대·중·소로 나누고 戶長 등을 두어서 관리하였다. 따라서 김수와 고여림의 고려군은 본읍인 대촌현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이며, 삼별초가 조천포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천포 주변에 환해장성을 초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 관군이 조천포를 중심으로 동-서 지역의 일정한 거리에 석축을 축조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였을 것이며, 『고려사』에서는 김수가 200명의 병사를, 고여림이 70명의 병사를 지휘하여 상당한 거리에 석축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조력자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誤記일 수는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고여림이 1천 병사를 운용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고려 관군에 협조적인 토호 세력이 합세한 것이거나, 탐라시대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을 동원하였을 때의 軍勢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1천 명 중 관군 270명을 제외한 730명은 모두가 토호세력은 아닐 것이며 대체로 조천과 함덕 주변의 제주원주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고려 관군은 조천포에 축성할 때 탐라민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탐라민이 쌓은 환해장성의 축조 방식이 수직 외벽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탐라시대부터 축조되었던 석축 유구와 유사한 형식을 띄고 있다.

한편, 삼별초군은 진도를 떠나 비양도에 함선을 은닉하였다가 명월포로 상륙하여 동진하는 부대와 조천포에 상륙하여 서진하면서 관군을 進攻하여 송담천에서 관군을 몰살하였던 협동작전으로 제주 상륙에 성공하였다. 이후 항파두리에 입거한 삼별초는 상륙지점인 명월에서부터 동쪽으로 고내까지의 환해장성을 이어서 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별초는 항파두리성과 주변 마

을인 歸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⁴¹⁾에 이르는 현촌을 세력 범위로 두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⁴²⁾

⑩ 高內○徒上吳⁴³⁾

⑪ 적이 耽羅縣에 들어와 防守散員 鄭國甫 등 15인을 죽이고 郎將 吳旦을 사로잡아 갔습니다.⁴⁴⁾

⑫ 左軍의 전함 30척은 飛楊島로부터 직접 적의 요새를 습격하였는데, 적이 그 위세에 휩쓸려 內城으로 도망쳐 들어갔다.⁴⁵⁾

⑪에서와 같이 탐라현에 들어가 정국보 등을 죽이고 오단을 사로 잡아가는 것은 고려 정부군에 동조하거나 토호를 비호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고려 관군이 최초의 석축을 쌓을 때도 비협조적이었던 배경에는 1168년 발생한 양수의 난과 1200년 초의 번수·번석의 난의 원인으로 보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수탈과 賦稅부과로 인한 제주민의 불만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⑫에서도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정벌하기 위해 선택한 해로도 삼별초가 상륙했던 비양도와 명월포를 상륙 거점으로 삼았던 것에 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제주에서 북쪽 바다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삼별초는 애월 해안의 방비에 전력하면서 일대의 직촌에서 노동력과 축성 주체인 탐라민의 조력을 받

41) 『朝鮮王朝實錄』 卷2, 太宗 16年 5月 丁酉, “西道 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42) 전영준,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193~220쪽 참조.

43) 전영준, 위의 글, 2015, 199~200쪽에서 명문와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高內■徒上口■文’으로 분석하였다가, 이후 계속 천착한 결과 인용문과 같은 해석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중이다.

44) 『高麗史』 卷27, 世家27 元宗 14年 3月 癸酉, “賊入耽羅縣 殺防守散員鄭國甫等十五人 擒郎將吳旦等十一人.”

45) 『高麗史節要』 卷19, 元宗 14年 4月 미상, “左軍戰艦三十艘 自飛楊島 直擣賊壘 賊風靡 走入內城.”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삼별초가 대몽항쟁 시기에 제주를 배후 거점으로 삼은 것은 첫째, 진도와 해상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어 진도의 배후 거점 해도로 적합한 점, 둘째 제주도는 고려정부의 세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 세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용이한 점, 셋째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로 본토의 남해와 서해 일대의 해상제해권과 일본의 큐슈와 류큐 등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입보민의 생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⁶⁾ 그리고 삼별초가 웅거했던 항파두리 토성에서 추자도를 비롯한 북쪽 바다의 관측이 용이하였다는 것은 여몽연합군의 제주도 공략 과정에서 선제적인 방어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과 남해안 일대의 물길을 완전히 파악하였던 고려 수군의 특징도 함께 갖추었음을 말한다.⁴⁷⁾

환해장성 수축의 목적은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데 있었다. 다만 마을에 따로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해안에 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탐라의 읍치가 평지에 위치하여 방어에 적합하지 못했을 것과 둘째, 금성리 유적에서 발굴된 석축 유구와 같이 각 마을별로 방어선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에 따른 각 마을별 추가적인 축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⑬ 적이 암석 사이에 병사를 숨겨놓았다가 뛰어올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들에게 항거하였다.⁴⁸⁾

⑬에서와 같이 환해장성은 해안에 상륙하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매복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진5]와 같이 바다에서 환해장성을 보았을 때



[사진5] 삼양 - 화북 환해장성 전경

46) 김호준, 「강도 강화중성의 축성과 삼별초」, 『강화·진도 삼별초의 대몽항쟁』, 2015년 제주학회 제 4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5, 30~31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47) 전영준, 「고려시대 삼별초 전쟁난민과 피난처」, 『동국사학』 72, 2021, 71~72쪽.

48) 『高麗史節要』 卷19, 元宗 14年 4月 米上, “賊伏兵巖石間 踊躍大呼以拒之.”

절벽 또는 정박하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게 하여 상륙할 곳을 한정시킴으로써 방어에 용이한 지점을 선택하여 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환해장성의 축조는 고려군과 삼별초군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해장성의 성석이나 면석, 채움석 모두 제주도산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장소에서 석재를 가져와 성을 축조한 것이 아닌 환해장성 주변 해안의 석재를 직접 이용한 점이다. 제주도의 다공질 현무암은 한반도 내의 석재와 그 성질이 달라 성곽을 축조하는데 치석의 어려움이 있어서 환해장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현무암을 활용하는 석축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민들이 대거 동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시대 축조 환해장성의 성격은 첫째, 한반도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둘째, 조천 지역 일부와 애월지역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 셋째, 매복에 용이하거나 선박의 정박을 한정시켜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환해장성은 제주민의 노동력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삼별초를 축성의 주체로 특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삼별초 입도부터 삼별초 토벌까지 3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김통정의 삼별초는 세력 확충을 목적으로 제주 백성들을 회유하고 응원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송담천과 동제원에서 대치상황에서 삼별초가 압승한 이후 1273년 4월 160척의 함선과, 동원된 1만 연합군 군사에 의하여 제주 삼별초가 전멸될 때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삼별초는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나름 항파두성을 비롯하여 환해장성 등 방어선 구축 노력을 계속하였고, 특히 1272년 3월~5월간 조운선 세곡을 3,200석 강탈하여 제주 백성을 달래는 위무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른다. 비록 삼별초가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고는 하나 기왕에 제주 백성에 편입된 자도 있고, 산중에 숨어(혹은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도피) 있다가 후에 제주로 합류한 경우도 추정할 수 있어 환해장성 축조에 제주 백성이 동원되었음⁴⁹⁾은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축성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적어도 제주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삼별초라면 축성작업에 제주민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것이고 특히 축성 구조가 용장산성 구조와는 매우 다른 허튼쌓기식 겹담 구조로 제주민들의 발담, 산담, 집담 등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관군이나 삼별초가 축성의 주체가 되고 제주민이 작업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환해장성의 구조와 형식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진성이나 현성과 같은 유적들과는 다르게 1270년 이전 축성 되었다고 알려진 제주성⁵⁰⁾의 경우 현무암재료-협축-막돌허튼층쌓기에 잔돌 채우기의 절치는 환해장성의 구조형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정의성(1416년 축조)⁵¹⁾이나 대정성(1418년 축조)는 현무암재료-협축-바른층 쌓기⁵²⁾로 가로쌓기와 모쌓기가 병행되어 나타난다. 자연석을 치석하여 촘촘히 쌓아올리는 방식은 당연히 규모를 갖춘 축성에 유리하였을 것이다. 다만 현무암을 치석하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그 만큼 더 필요했을 것이다. 긴 해안선에 걸친 환해장성의 수리 보수 및 신축 작업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과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고려-몽골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삼별초 전체 구성원을 압박하였고 방어선 구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삼별초의 환해장성 축조에 제주민의 동원은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현존 고려시대에 축조된 환해장성의 주체는 고려 관군, 삼별초, 제주백성 3대 세력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최초의 환해장성 수축에는 관권을 통한 제주민의 동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해장성의 구조형식에 반영된 제주의 돌담쌓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엄연하게 제주의 형식으로 남아있고 그 형식은 제주 백성의 문화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49) 관군의 환해장성 축조에 제주백성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기록은 최해의 『졸고천백』에서 확인할 수 있다(崔濬, 『拙藁千百』 卷1; 김문정공묘지명; 임용한, 『전란의 시대』, 2008, 224~225쪽 재인용). 반면 관군-삼별초 초기 대처상황에서 삼별초에게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배경이 제주백성의 협조 덕분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임용한, 위의 글, 2008, 226쪽 재인용).

50) 고성보, 강정효, 최용복, 양진철,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107쪽.

51) 고성보 외 3인, 위의 글, 2009, 110쪽.

52) 김유정은 바른돌 쌓기, 혹은 正石 쌓기로 표현하고 있다(김유정, 앞의 글, 2015, 44쪽).

항파두성은 제주도의 서쪽 한 쪽에 자리한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환해장성은 제주의 해안을 둘러치는 보다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⁵³⁾ 이에 따라 환해장성의 축조 목적을 “방어용”으로 설정하고, 환해장성에 관하여 서술한 문헌자료 축조기록을 참고하여 축조시기를 검토하고자 한다.⁵⁴⁾

1270년(원종 11) 고려는 원과의 강화를 반대하며 대몽항쟁을 벌였던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제주로 입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군 김수와 고여림이 군사 1천명과 환해장성(고장성)을 쌓았다. 고려 정부는 삼별초가 진도와 남해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언급된 고장성은 『耽羅志』,⁵⁶⁾ 『耽羅紀年』⁵⁷⁾에도 언급되어 있으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하면 최초의 환해장성 축조기록은 고려 원종 대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 아들 김태현의 「김문정공묘지명」을 통해 환해장성은 고려 관군에 의해 초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들은 제주 방어기간이 짧기 때문에 환해장성은 이후 삼별초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증·개축되었다.⁵⁸⁾

다만 『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양동무, 고여림 등이 1270년(원종 11) 9월에 진도를 토벌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9월 중순 이후에 제주도에 갔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⁵⁹⁾ 『高麗史節要』 1270년(원종 11) 11월에 안찰사 권단이

53) 윤용혁, 『삼별초』, 해안, 2014, 294쪽.

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 37, 古跡條; 『高麗史』; 金錫翼, 『耽羅紀年』卷之1, 耽羅; 金正浩, 『大東地志』卷12 濟州城地條; 『增補文獻備考』卷之 27.

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전라도, 제주목, 고적조, “古長城 沿海環築周 三百餘里 高麗元宗時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霖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김용선, 「김문정공 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56) 李元鎮, 『耽羅志』, 古跡條, “古長城 沿海環築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霖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57) 金錫翼 『耽羅紀年』卷一, 耽羅條, “元宗十一年冬十一月 三別抄陷本國初三別抄叛掠江都人浮海南下 全羅按察使權坦靈光副使金須以兵二百來守 又遣將軍高汝霖以兵七千繼之時 賊猶保珍島未至 須汝霖等因修築環海長城.”

58) 김용덕, 「제주 삼별초 유적의 성격」,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국내학술대회』, 2016.

59)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11年 9月 辛丑, “將軍楊東茂高汝霖等以舟師討珍島 賊入長興府殺京卒二十餘人擒都領尹萬藏剽掠財穀.”; 『高麗史節要』卷18, 元宗 11年 9月 “初 按察使權坦遣靈巖副使金

영암부사 김수를 보내 군사 200명과 제주를 지키고 장군 고여림을 보내 병사 70명으로 뒤따르게 했다.⁶⁰⁾ 그러나 그해 명월포로 들어온 삼별초와의 전투 중에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¹⁾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려 정부의 명으로 쌓은 환해장성은 1270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축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의 축조도 300명이 채 안되는 고려 관군이 축조하였다기 보다는 官權으로 제주 백성을 동원하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제주민의 석축쌓기 방식을 원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삼별초가 명월포로 들어와 관군을 전멸시키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축조된 환해장성을 방어체계 구축의 목적으로 재정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⁶²⁾ 삼별초 공략 이후에도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정비를 해나갔다. 영국군함 등 이양선이 제주바닷가 근해에 나타남에 따라 상륙 대비를 목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⁶³⁾

그러나 삼별초의 제주 입거 기간이 짧고 여몽연합군의 공세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에서와 같이 300여 리에 이르는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초의 축성은 고려 정부군이었고, 이어 삼별초군이 보완과 증축을 목적으로 삼별초의 거점지인 향파두리성의 전방 지역과 조천포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정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삼별초군이 고려 관군을 공격할 때 명월포에 상륙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파두리성을 외곽에서 호위하는 지역과 이전 시기부터 제주목의 주요 교통요지였던 화북포와 조천포 정도로 제한하였을 것이다.⁶⁴⁾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단기간에 고려 관군에 의해서 축조되었으며, 이후 관군

須 以兵二百守濟州 又遣將軍高汝霖 以兵七十繼之.”; 『東史綱目』 第11下, 元宗 11年.

60)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11年 11月 “初 按察使權叵遣靈巖副使 金須 以兵二百守濟州 又遣將軍高汝霖 以兵七十繼之.”

61)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11年 11月; 『東史綱目』 第11下, 元宗 11年.

62) 김보환, 「제주도 '環海長城'과 규슈 '元寇防壘'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학회』 55, 한일관계사학회, 2016, 49쪽.

63) 金錫翼, 『耽羅紀年』 卷4. “乙巳(朝鮮 憲宗 11年) 十一年, 冬 修築環海長城.”

6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전영준, 앞의 글, 2015, 215쪽.

을 전멸시킨 삼별초가 1270년 12월부터 1273년까지 적의 침입에 취약한 부분의 성곽을 축조하거나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삼별초의 제주 입거 방식은 해안의 중요 포구 6곳에 대한 환해장성을 수축하고, 애월포를 중심으로 목성을 추가로 설치한 후 항파두리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측 및 방어용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여몽연합군의 공세를 전략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요새 구축의 배경에는 당시 고려에 복속된 제주의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하는 방어기지의 구축과 지속적인 병참 및 보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⁶⁵⁾

2) 환해장성의 원형과 변형

환해장성은 훼손이 심해 전체의 규모를 알기 어렵고 문헌사료에 있어 300여리에 걸쳐 축조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높이와 너비, 성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다. 다만 앞서 논의한 금성리 석축유적의 성격인 제방 시설에 중점을 두고, 고려시대에 축조된 환해장성의 특정지역을 비교하여 탐라시대의 석축문화가 전승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표1] 환해장성 축조 주체와 시기

축조 주체	축조 시기	주요 사실
김수, 고여림	1270. 9월~11월(약2개월)	삼별초 입도 방어 목적으로 축조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에는 ‘古長城’ 표기
삼별초	1270. 12.~1273.	삼별초가 연합군의 제주상륙 저지를 위해 환해장성 보수 및 증축
고려후기~조선시대 정부	고려후기~조선시대	왜구 침입 방어 목적 추정
조선후기 정부	조선후기	이양선에 대비하기 위해 환해장성 보수

65) 전영준, 앞의 글, 2015, 214~216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성리 유적지와 제주발담에 구현된 석축문화의 축적된 기술과 전통은 고스란히 환해장성의 축조에 이어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재음미 해보면, 환해장성의 초축이 고려 관군에 의해 시작된 이후 1270년(원종 11) 11월에 제주 지역을 점령한 삼별초 군은 1273년(원종 14) 5월 패전할 때까지 18개월 동안 제주 지역에 있으면서 항파두성을 축조하고 포구, 도로 및 환해장성을 정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탐라기년』에 따르면, 1845년(헌종 10)에 “이상한 선박이 나타나 측량하며 지도를 제작하자 權節 제주목시는 놀라서 마병과 총수를 총동원하고 환해장성을 수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환해장성은 575년 동안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2] 탐라 석축유구와 특정 환해장성 비교

(단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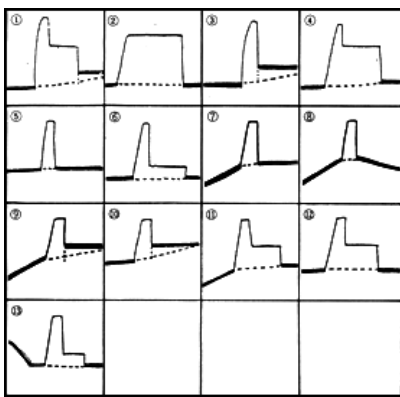
구분	높이	폭	길이	사진
금성리 석축유구	1.8~2.1	4.2~4.5	62.2 + 18.0	
별도 환해장성	2.3~3.8	4.0~5.5	700	
에월환해장성	5.0	360		

한편, 환해장성은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해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염분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했다.⁶⁶⁾ 더욱이 환해장성을 옆에 끼고 올레길을 오가는 인구의 증가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제주도 행정당국은 환해장성을 제주도 기념물 제49호로 지정하였다.

[표3] 제49-1~49-10호 환해장성 현황

분류	기념물	명칭	길이	소재지
성/성곽	제49-1호	근을동환해장성	140m	제주시 화북일동 4373 외4
	49-2호	별도환해장성	620m	제주시 화북일동 1533-4
	제49-3호	삼양환해장성	280m	제주시 삼양3동 2622-1 외8
	제49-4호	애월환해장성	360m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 외8
	제49-5호	북촌환해장성	250m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 외1
	제49-6호	동북환해장성	150m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687-5
	제49-7호	행원환해장성	310m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2번지 외
	제49-8호	한동환해장성	290m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0 외4
	제49-9호	온평환해장성	2,120m	제주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732 외6
	제49-10호	신산환해장성	600m	제주시 성산읍 신산리 49-5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문화역사, 제주의 문화재)



[그림1] 환해장성 및 지형의 단면 형태

아울러 [그림1]의 ①, ④, ⑥, ⑪, ⑫, ⑬을 보면 구조 단면에서 廻郭道와 女牒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환해장성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군사적 필요에 의한 변형 요소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형적 요소인 내부회곽도, 여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66)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전자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jeju>).

환해장성은 고내리 환해장성, 애월 환해장성, 곤을동 환해장성, 삼양 환해장성으로 고려시대 축조 환해장성의 원형적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제주의 무한자원으로 널린 바위와 돌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에 투영된 돌문화는 탐라국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 관군에 의해 축성된 환해장성은 조선 시대에 전승되어 연대와 봉수 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결국 환해장성의 初築으로 이전 시기인 탐라국에 축성문화가 없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바람에 제주의 돌문화에 대한 시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의 대표적 석축문화로 볼 수 있는 성곽과 관방에 대한 석축 사례는 이미 탐라전기에 축조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석축유구부터 축적되어 온 돌문화의 전승에서 비롯하였다. 『唐會要』에서 확인되는 기록을 보더라도 7세기 후반 탐라의 주거 형태는 지상식 주거지로 주거지 경계에 돌담을 두르고 풀로 지붕을 엮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형태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이전부터 이용되었을 것이다. 즉, 금성리 원형석렬 유구는 원형의 돌담집 자리로 여겨지며, 제주도에는 탐라국 시기에 이미 돌을 이용한 석축 문화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관 김구의 발담 수축은 탐라전기(삼국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 유적의 수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인 탐라 전기부터 활용되어 온 석축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거지 보호나 마을 보호 등의 경계 석축의 원용을 통해 생활문화의 저변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환해장성은 제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 후기까지 활용되었던

중요한 관방시설이었다. 특히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해 고려 관군에 의해 축조된 환해장성이 조선시대에서는 연대와 봉수 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환해장성의 축조가 제주 축성 문화의 시원처럼 묘사되고 있어서 탐라국 시기의 축성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제주의 돌 문화 또는 석축 문화는 외부의 문화 전파로 형성되었다는 시각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제주의 돌문화가 환해장성으로 대표되면서부터 탐라국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을 석축 또는 축성문화의 원형을 망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환해장성의 축조는 기존의 고려시대 축성과는 차이가 있고, 축성에 동원된 제주인들이 고유의 석축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환해장성의 축조는 고려군과 삼별초군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환해장성의 성석이나 면석, 채움석 모두 제주도산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장소에서 석재를 가져와 성을 축조한 것이 아닌 환해장성 주변 해안의 석재를 이용한 것이다. 제주도의 다공질 현무암은 한반도 내의 석재와 그 성질이 달라 성곽을 축조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려군과 삼별초군이 환해장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현무암을 활용하는 석축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 백성들을 대거 동원하였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節要』 『高麗史』 『唐會要』 『大東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拙叢千百』 『耽羅紀年』 『耽羅誌草本』 『耽羅志』 『蘆沙集』 『止浦集』

2. 저서

고성보·강정호·최용복·양진철,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김용선, 『역주 고려료지명집성』 (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김유정, 『제주 돌담』, 서귀포문화원, 2012.

_____, 『제주의 돌문화』, 대원사, 2015.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_____, 『삼별초』, 혜안, 2014.

3. 논문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강창화, 「고대 탐라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로 보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김경주,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 『『人類學考古學論叢』,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2012.

_____,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김보한, 「제주도 '環海長城'과 古具 '元寇防壘'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2016.

김용덕, 「고려시대 탐라의 사찰 유적」, 『탐라의 고려 불교 수용과 전개 양상』 - 2023 탐라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23.

김호준, 「강도 강화중성의 축성과 삼별초」, 『강화·진도 삼별초의 대몽항쟁』, 2015년 제주학회 제4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5.

_____, 「삼별초 제주도 항몽유적 축성시기 검토 - 항파두리성과 환해장성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박재현, 「토기로 본 제주지역 탐라후기의 대외관계」, 『호남고고학보』 69, 호남고고학회, 2021.

전영준,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_____,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난」, 『역사와 교육』 25,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_____, 「고려시대 삼별초 전쟁난민과 피난처」, 『동국사학』 72,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_____, 「제주 廢寺址로 본 탐라의 불교 수용」, 『탐라의 고려 불교 수용과 전개 양상』 - 2023 탐라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23.

하태규, 「고려후기 김구(金丘)의 정치활동과 학문」,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학회, 199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전자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

4. 보고서 및 자료집

김용덕, 「제주 삼별초 유적의 성격」,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국내학술대회』, 2016.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금성리유적』, 2001.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금성리 638-1번지 유적』, 2019.

The Origin and Inheritance of Stone-Architectural Culture in Tamla and Jeju

JEON, young-joon*

Stone-masonry culture in Jeju demonstrated through the fortress and the abode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 typical examples had began with the stone-made structure on Keumsung-Ri that was built in the early period of Tamla and is now only remains. This stone culture had been accumulated and inherited. Housing type in the late 7th century in Jeju was the architectural form on the ground with stonewall and thatched-roof. It could be inferred that this residence type did not appear all of sudden, and thus had been made in the earlier time. In sum, the site of Keumsung-Ri can be thought of an original form of housing type with stonewall, which shows that there had already been stone-masonry culture in the period of Kingdom of Tamla.

Known from the example of Keumsung-Ri site built in the early period of Tamla (three Kingdoms period), constructing the stonewalls around dry field (farm) by judge Kim Koo was based on the stone-masonry culture which had been utilized from the early period of Tamla. Stonewall, which was a stone-made structure marking boundary, had a function of protecting the residential area or village. In this context, constructing stonewall around fields have a historical significance of spreading stone culture and making it rooted in everyday life

The long wall surrounding seashore(Hwanhaejangsung) had been the structure of military defense till the late period of Chosun. The long wall built by Korye army in order to obstruct Sambyulcho(Korye's special forces, and

* Professor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rebels at that time)’ invasion, had been militarily utilized as a supplementary facility with the site for beacon fire. However, it is disputable to think of the long wall surrounding seashore as a beginning of architectural culture without recognizing its origin from the time of the Kingdom of Tamla. Nevertheless, unfortunately the interpretation that stone culture or stone-masonry culture in Jeju had been transferred from outside and then diffused has been widely spread.

It is mistaken to investigate the long wall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ructing style in Korye and it, and the specific stone-masonry culture shared by Jeju people who were mobilized in constructing the long wall.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Korye army or Sambyulcho alone to build the long wall. All of Seong-seok(城石), Stones used for walls(面石), the stone that fills the inside of the wall(채움석), in the long wall were made out of Jeju basalt, and then it meant that the long wall was built with stones nearby rather than the materials taken from other places. Basalt being porous was very different from stones from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Korye army and Sambyuncho,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long wall, had to mobilized Jeju people who already had their own architectural culture based on basalt since the early period of Tamla.

Key words : Keumsung-Ri Stone-Masonry site, Stone Architectural Culture, Judge Kim Koo, Stonewall of Dry Field, Long Wall Surrounding Seashore(Hwanhaejangsung), Sambyulcho(Korye’s Special forces)